

# '혈관 노화 예방, 속갓이 한다'

### 식품연, 비타민 C 등 항산화 성분 풍부해 혈관 내피세포 보호

속갓 님은 채소인 속갓이 혈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 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속갓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혈관 노화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노화 대사연구단 이애신 박사팀은 혈관 내피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내 연구를 통해 속갓이 내피세포의 노화를 억제해 고혈압 등 혈관 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박사팀은 혈관 내피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물질(과산화수소)을 가해 내피세포의 노화를 유도하고, 이어서 속갓 추출물을 부여한 다음 혈관 내피세포 노화의 억제 정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속갓 추출물을 부여하지 않은 내피세포에선 자극 물질을 일렬 가하지 않았을 때 대비 노화가 3배가량 일어났는데 반해 속갓 추출물을 부여한 내피세포에선 노화 유발이 1.1~1.5배에 그쳤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주입하자, 혈관의 수축·이완에 관여하는 일산화질소(NO)의 양이 바로 약 40% 감소했다. 이어 속갓 추출물을 넣자, 일산화질소가 반대로 약 80% 증가했다 이는 속갓이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일산화질소의 생성량을 대폭 증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다. 이 세포가 노화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등 혈관 기능 장애가 일어난다. 이 박사는 "세포 노화란 세포가 더는 분열하지 않는 상태를 가

리킨다"라며 "혈관 내피세포가 노화하면 고혈압·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팀은 이번 연구결과(속갓 추출물이 혈관 내피세포의 노화 예방)를 분자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Current Issues in Molecular Biology) 최근호에 소개했다

이 박사는 "속갓이 혈관 노화 예방 식품으로 기능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라며 "앞으로 생체 연구·실험동물에 이용한 연구 등을 통해 속갓이 혈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분명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하림, 어린이날 선물 후원

### '아침먹고' 조식지원 아동 222명에 용가리세트 전달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2일, 월드컵 전북지역 본부와 도내 조식지원 학생 222명에 어린이날 선물로 '용가리치킨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림의 '아침먹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의 '아침먹고' 지원 프로그램은 익산지역 내 교육소의계중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맞춤형 선물꾸러미를 전해주는 이벤트 행사도 함께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6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하림의 사회공헌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월 드비전과 익산교육지원청이 협력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아침먹고' 조식지원 사업은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와 정서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올해 3월에도 익산지역 이리초등학교, 익산초등학교, 이리부천초등학교 총 3곳에 지원금 2,760만여원을 지원했으며, 6년간 누적 후 총 후원 금액은 약 1억5,870만원이다.

이날 하림 정호석 사장은 "하림과 월 드비전이 함께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정기적인 하림피오 봉사단 활동 연말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헌혈 참여 군 장병 위문품 후원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역산=이재춘 기자



## 이모작용 논콩 '선유2호', 1.5배 백백이 심으세요

### 농진청, 심는 밀도 1.5배 높이면 꼬투리 달리는 위치 높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져

논콩 '선유2호'는 기존 품종 '선풍'보다 생육기간이 16일 짧은 중생종이다. 6월 중순에 심으면 10월 중순에 수확할 수 있어 밀·양파 등 동계작물과 이어짓기에 적합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으며 수확량도 10아르당 334kg으로 높다. 다만, 키가 작아 꼬투리 달리는 위치도 낮아 기존 품종처럼 심으면 기계 수확할 때 손실을 볼 수 있다.



농진청은 논 이모작에 알맞은 콩 '선유2호'를 재배할 때 기계 수확에 적합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논 이모작에 알맞은 콩 '선유2호'를 재배할 때 기계 수확에 적합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선유2호'를 심을 때 관행보다 밀도를 1.5배 높이면 키가 커져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발작물개발과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연구에서, '선유2호'를 1.5배 밀식 재배했을 때

식물체 간 경쟁으로 마디 사이(절간)가 0.4m 길어져 꼬투리 달리는 높이도 3cm 높아졌다.

가지 수와 꼬투리 수는 각각 2.8개, 34개로 관행보다 0.6개, 5개 감소하지만, 단위 면적당 개체 수가 확보돼 수량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

심는 간격이 70×15cm이면 구멍당 3~4알씩, 70×20cm이면 구멍당 4~5알씩 심도록 권장한다. 이 외에 물 대기와 비료 주기 등 재배관리 방법은 관행과 같다.

한편, '선유2호'는 6월 중순 파종하면 고온 다습한 8월에 꼬투리와 알맹이가 발달해 자주무늬병 같은 곰팡이병에 취약해진다. 파종 전 종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등록된 약제로 병을 예방하면 수확량을 보전할 수 있다.

발작물개발과 정지용 과장은 "논 이모작 재배에서 '선유2호'를 관행보다 백백이 재배하면 기계작업이 원활해져 수확량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더불어 파종 전 철저한 종자 소독과 제때 방제로 품질 좋은 원료 곡을 수확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도내 회계담당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등 하루에 끝내는 현금흐름표 작성실무법 교육을 개최했다.

### 전주상의, 하루에 끝내는 현금흐름표 작성 실무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도내 기업 총무·경영·회계담당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 접수관리, 기업건강상태 분석 등 기업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루에 끝내는 현금흐름표 작성실무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회계컨설팅 및 조세전문가인 오종원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 △영업/투자/재무활동의 구분기준과 차이점 분석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조정원리 △외화매출채권의 환산손익 조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던 회계업무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번 교육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기업환경속 조급이 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NH농협은행, 엄마아빠와 함께, '허그팜 금융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농협 전북본부 4층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Hug Farm) 금융교육'을 2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일일 은행원이 되어 통장개설 및 입금, 출금 등의 금융업무를 포함해 금융사기 예방교육·디지털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게임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금융교육'을 본부 4층에서 2일 진행했다.

또한 교육시 제공되는 상품 교환권으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결제까지 해봄으로써, 경제체험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링 12기' 단원들이 교육 진행을 도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정환 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참여형 금융교육을 마련하였다"며 "도내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진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이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경진원, 전북FTA센터 환율변동 대응법 교육생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북FTA 통상진흥센터(이하 전북FTA센터)는 최근 달러강세 지속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 수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환리스크 대응법'에 관한 교육을 오는 10일 도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가 간 지속적 전쟁 이슈 및 미국 달러화 강세 그리고 원화와 엔화 가치가 중국 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 상황 속 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환 리스크 관리에 익숙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현재 외환전문위원으로서 20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환율 동향 및 전망 △환 리스크 개념 및

대응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 참고 또는 대표번호(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환율 및 무역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대표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FTA센터는 FTA 전문가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관세, 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수출전략팀(063-711-2180) 또는 수출통합지원센터 대표번호(☎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